

# 쿰란의 유대이즘과 헬레니즘

송창현\*

## 1. 들어가는 말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다양한 주변 세력들의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의 연속이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변화하는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 안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전 에 대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유지하려는 응전의 연속이었다. 특히, 기원전 587-538년의 바빌론 유배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이 바빌론 유배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끝인 동시에 제2차 성전 시대 유대이즘의<sup>1)</sup> 모태였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기원전 323년에 사망)은 지중해 주변과 중근동에 대대적인 정복 사업을 벌였다. 그는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여 그리스 문화를 널리 퍼뜨리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생겨난 것이 바로 헬레니즘이다.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였다. 이것이 팔레스타인에서의 헬레니즘 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2차 성전 시대의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이 만나게 되었다.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의 연구에서 독보적인 학자인 행엘(M. Hengel)

---

\* 대구 가톨릭 대학교 교수, 신약학

1) “제2차 성전 시대 유대이즘”이란 기원전 538년 바빌론 유배로부터 귀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 이후 기원후 70년 이 성전이 파괴되기까지의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 세계관, 종교 사상과 실천을 가리킨다.

1)<sup>2)</sup>은 1976년 루벵에서의 쿵란 학회 모임에서 “쿵란과 헬레니즘”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sup>3)</sup> 그는 이 논문에서 쿵란과 헬레니즘이라는 주제는 마치 불과 물 같고, 쿵란의 용어로 말하자면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했다.<sup>4)</sup> 이것은 보수적인 유대이즘을 대표하는 쿵란 공동체와 새로운 문화 현상인 헬레니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의미한다.<sup>5)</sup> 그러나 동시에 행엘은 쿵란에서의 헬레니즘의 영향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시각들을 제시한다. 헬레니즘의 가장 강한 반대자인 쿵란 공동체조차도 헬레니즘이라는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쿵란에서의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의 만남에 대해 살펴보고, 이 만남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고찰해 보려고 한다. 먼저 기원전 2세기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에서 하시딤과 에세네파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토대 위에서 쿵란에서의 그리스어, 점성술과 골상학, 부활 사상, 공동체의 성격 등의 주제를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 2. 하시딤과 에세네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팔레스타인은 기원전 320-200년 사이에는 프톨레매오 왕조의 지배를 받고, 기원전 200-164년 사이에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 이 시대에는 유대이즘과 헬레니즘 사이의

---

2) M.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Studies in Their Encounter in Oalestine in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2 (Philadelphia: Fortress, 1974).

3) M. Hengel, “Qumran und der Hellenismus,” M. Delcor, ed., *Qumrân: Sa piété, sa théologie et son milieu* (Gembloux: Editions J. Duculot, 1978), 333-372.

4) M. Hengel, “Qumran und der Hellenismus,” 333.

5) G. Bohak, “Hellenism,”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51.

6) M. Hengel, “Qumran and Hellenism,” J. J. Collins and R. A. Kugler, eds., *Religion in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2000), 55.

다양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났다.<sup>7)</sup> 기원전 166년에 마타티아스와 그의 아들들이 셀레우코스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대해 하여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마카베오 항쟁이다.<sup>8)</sup> 유다 마카베오는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되찾고 성전을 정화하였다. 그후 마카베오-하스모네아 가문은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의 갈등은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시기인 기원전 175-164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의 연속에서 잘 드러난다.<sup>9)</sup> 헬레니즘과 갈등을 일으킨 유대이즘의 다양한 반응들은 그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극적 협력, 소극적 협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10)</sup>

첫째, 유대인 중에는 안티오쿠스 시기의 헬라식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헬라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사제 아손과 메넬라오스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신정주의자들이다. 1마카 1,52-53에 따르면 안티오쿠스 박해 시기에 가해자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다.<sup>11)</sup> 그리고 헬라식 개혁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이들도 있었다(1마카 1,43; 6,23; 다니 11,32; 유대 고대사 12권 255).

둘째, 새로운 정책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협력한 이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2마카 6,7).

셋째, 헬레니즘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은 재산의 몰수나 종교

7) C. Saulnier, *Histoire d'Israël* (Paris: Cerf, 1985), 105-143.

8) C. Saulnier, *La crise maccabéenne* (Paris: Cerf, 1982).

9) J. J. Collins, "Cult and Culture: The Limits of Hellenization in Judea," J. J. Collins and G. E. Sterling, eds., *Hellenism in the Land of Israel*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1), 42.

10) J. Sievers, *The Hasmoneans and Their Supporters: From Mattathias to the Death of John Hyrcanus I* (Atlanta: Scholars Press, 1990), 21-26에는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여덟 가지로 분류된다. 적극적 협력, 자발적 순종, 강요에 의한 순종, 무기력, 회피, 완화, 비폭력적 저항, 무력 저항.

11) 유대인 협력자들에 대한 암시는 다니 11,30과 1에녹 90,16에서도 발견된다.

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거처를 떠난 이들과 비폭력적 저항을 옹호한 이들로 유대이즘의 전통적 가치에 충실했다(1마카 2,29-38; 2마카 6,11; 유대 고대사 12권 275).

넷째, 헬레니즘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이들은 마카베오 항쟁의 주동자들과 지지자들인데, 이들은 폭력적 저항을 선택하였다. 1마카 2,42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전사들이며 또한 율법에 헌신하는 이들인 하시딤도 이 적극적인 저항에 동참하였다. 하시딤은 마타티아스의 지휘 아래에 모인 다양한 그룹들 중의 하나로서 율법의 이름으로 헬레니즘에 반대하였고, 안티오쿠스 4세에 저항하였다.

하시딤은 마카베오 가문의 붕기에 대해서는 지지하였지만, 그들의 정치적 행태는 비판했다. 결국 하시딤은 정치적인 이유로 요나단 마카베오의 통치 시기에 바리사이파와 에세네파<sup>12)</sup>로 나누어지게 된다. 요세푸스는 바로 이 요나단 마카베오 시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에세네파를 언급하였다.<sup>13)</sup>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이즘 안에서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와 함께 중요한 종교적 그룹들 중의 하나로 존재했던 에세네파의 기원을 기원전 2세기 초의 하시딤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sup>14)</sup>

12) 기원후 1세기의 고대 저술가들은 제2차 성전 시대, 즉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이어주는 당시의 팔레스타인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특히 로마의 지리학자인 율로 플리니,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유대인 사상가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그룹들 중의 하나였던 에세네파에 대해 귀중한 기록을 남겼다. 플리니는 그의 저서 “자연사”에서 유다 광야를 묘사하면서 사해 근처 엔게디의 북쪽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에세네파에 대해 기록하였다. 필로도 그의 저서 “선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다.”와 “유대 민족 변론”에서 에세네파에 대하여 중요한 역사적 보도를 전한다.

13)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유대 전쟁사』 2권 119-161과 『유대 고대사』 18권 18-22에서 에세네파에 대한 긴 묘사와 설명을 제공한다. 즉, 그는 에세네파의 사상, 조직, 생활 등에 대한 기록을 전한다. 이에 따르면, 에세네파는 율법에 충실하고 금욕적인 유대인들의 공동체로서, 재산을 공유하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잘 조직된 공동생활을 하였다.

14)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다음을 보라. É. Nodet, “Asidaioi and Essenes,” A. Hilhorst,

한편 기원전 1세기 초나 기원전 2세기 말에 쓰여진 다마스쿠스 문헌(CD)은<sup>15)</sup> 쿨란-에세네파 공동체의 기원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하느님이 첫 조상들과의 계약을 기억하시어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두시어 5 그들이 멸망되도록 하지 않으셨다. 6 그분이 그들을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겨주신 후 390년의 분노가 끝난 후 7 그분이 그들을 찾아주셨고, 이스라엘과 아론에서 식물의 뿌리를 내셨는데 8 이는 그분의 땅을 상속받고 그 흙의 결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고 9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20년 동안 장님과 같았고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10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마음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들의 행동들을 헤아리셨다. 11 하느님은 그들을 당신 마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참된 스승 한 사람을 세우셨다. 12 마지막 세대들에게 그 분이 배신자들의 모임에게 마지막 때에 행하신 것을 알게 하셨다.

여호야킨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 기원전 597년에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는데, 이 때 첫 번째 바빌론 유배가 있었다. 바룩 2서 1장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 시기는

---

É. Puech, and E. Tigchelaar, eds., *Flores Florentino: Dead Sea Scrolls and Other Early Jewish Studies in Honour of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Leiden: Brill, 2007), 63-87. 노테는 하시딤과 에세네파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15) CD의 두 중세 필사본(10-12세기)은 쉐히터(S. Schechter)에 의해 에집트 카이로의 에즈라 회당에서 1896년에 발견되었다. S. Schechter, *Documents of Jewish Sectaries, I. Fragments of a Zadokite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0). CD XVI 3-4는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쓰여진 회년서를 인용한다. 그리고 CD XIX 35-XX 1과 XX 13-14에 따르면 “정의의 스승”은 이미 죽은 것으로 소개된다. 더 나아가 쿨란에서 발견된 CD의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4Q266은 기원전 75년 경에 필사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에 따르면, CD는 회년서가 쓰인 후와 “정의의 스승”의 죽음 후인, 늦어도 기원전 1세기 초 혹은 기원전 2세기 말에는 저작되었다.

기원전 572년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10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시기는 각각 기원전 587년, 혹은 562년에 이르게 된다. 이 두 계산법 중에서 CD의 본문과 더 잘 부합되는 것은 바로 바룩 2서의 것이다. 따라서 CD에 쓰여진 390년과 20년 동안의 방향을 계산하면 쿰란 공동체의 창설자인 정의의 스승<sup>16)</sup>이 출현한 때는 기원전 152년이다.

기원전 174년에 야손은 그의 형인 정통 사독계 대사제인 오니아스 3세를 내쫓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가 되었다. 야손은 172년까지 대사제직을 수행하였으며, 야손 이후에는 사독계가 아닌 두 명의 대사제 즉, 메넬라오스(기원전 172-162년)와 알키모스(기원전 162-159년)가 뒤를 이었다. 그 후 기원전 152년에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알렉산더 발라스가 정치적 실권자인 요나단 마카베오를 대사제로 임명하였다. 대사제 요나단(기원전 152-143년)도 정통 사독계 출신이 아니었지만<sup>17)</sup> 정치권력뿐 아니라 종교 권력마저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원전 2세기의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의 유대고대사 20권 237에는 대사제들의 명단 중에서 알키모스와 요나단 사이, 즉 기원전 159년과 152년 사이에 대사제의 이름이 빠져 있다. 사실 유대이즘에서 대사제의 궤석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대속죄의 날에는 대사제만이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전례적 이유에서도 유대이즘에서 대사제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학자들은 요세푸스가

16) 정의의 스승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보라. J. J. Collins, "Teacher and Servant," *RHPR* 80 (2000), 37-50; M. A. Knibb, "Teacher of Righteousness,"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918-921; É. Puech, "The Essenes and Qumran, the Teacher and the Wicked Priest, the Origins," G. Boccaccini, ed., *Enoch and Qumran Origins: New Light on a Forgotten Conne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5), 298-302.

17) 최근의 새로운 논의는 다음을 보라. A. Schofield and J. C. VanderKam, "Were the Hasmoneans Zadokites?" *JBL* 124 (2005), 73-87.

이 7년 동안의 대사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기억의 단죄(damnatio memoriae)라고 부른다. 즉, 요나단에 의해 대사제직에서 쫓겨난 정통 사독계의 대사제가 바로 정의의 스승이며 그는 기억의 단죄의 대상에 되었던 것이다.<sup>18)</sup> 이러한 해석은 CD의 기록과 일치한다. 오니아스 3세가 죽고 메넬라오스가 대사제가 된 기원전 172년은 에세네파의 기원이 되는 하시딤이 20년의 방황을 시작한 시기이다. 그리고 기원전 152년에 마침내 정의의 스승이 유대 광야의 쿰란에 공동체를 창설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쿰란의 에세네파 공동체는 그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이즘 안에서 반 헬레니즘적 경향의 대표적인 그룹이었다. 그들은 참된 이스라엘, 남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이즘의 전통적 가치에 충실했던 공동체였다.

### 3. 쿰란의 그리스어

헬레니즘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대중적 국제어인 코이네 그리스어가 널리 사용되었다.<sup>19)</sup> 이 코이네 그리스어는 이전의 지역 방언 그리스

18) 우리는 1QpHab VIII 8-13; IX 9-12; XI 4-8; XII 2-6; XII 7-10; 4Q171 1-10 iv 8-10에서 언급되는 “악한 사제”의 정체와 관련하여 제시된 다양한 가설들 중에서 요나단 마카베오 이론을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 유다 마카베오에 이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요나단 마카베오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다(1마카 10,1-11). 이 시기의 요나단은 쿰란 사본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는 대사제직을 찬탈한 이후 재물 욕심 때문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요나단은 “정의의 스승”을 박해했지만, 결국 적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요나단의 이러한 최후는 성서와 요세푸스의 문헌에서도 발견된다(1마카 12,39-53; 13,23; 유대 전쟁 1권 49; 유대 고대사 13권 187-193, 203-212). 그리고 요나단을 악한 사제로 해석하는 이 가설은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사본들인 4QMMT, 4Q448, 4Q523 등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19) H. M. Cotton, “Greek,”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24.

어들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근동의 여러 토착 언어들 즉, 이집트어, 아람어, 히브리어, 소아시아의 언어들도 사용되었다.<sup>20)</sup> 그리스어가 비 그리스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그리고 비 그리스인들인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유대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그리스어로 표현하고 번역하였다.

헬레니즘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에 더 익숙해져 가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약 성서를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칠십인 역 성서이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안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구약 성서의 용어와 신학을 헬레니즘적 언어로 재해석하였다. 헬레니즘과 만났던 유대인들은 그 새로운 문화와 대화를 시도했다.

헬레니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언어적 상황은 쿨란의 열한 개 동굴에서 발견된 850여 종류의 사본에서도 잘 드러난다.<sup>21)</sup> 이 사본들은 세 종류의 언어, 즉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쓰였다.<sup>22)</sup> 전체 사본의 약 90 퍼센트는 히브리어로, 약 7 퍼센트는 아람어로, 나머지 약 3 퍼센트인 27개의 사본은 그리스어로 쓰였다.<sup>23)</sup>

쿨란 사본 중 명백하게 에세네파 공동체의 문헌으로 규명된 사본들

20) G. Bohak, "Hellenism," 350.

21) G. J. Brooke, "Langues, sciences et technique," F. Mébarki and É. Puech, eds.,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Rodez: Rouergue, 2002), 142-147.

22) 사해 사본의 전체 목록에 대한 DJD의 공식판은 다음을 보라. E. Tov, ed., *The Texts from the Judaean Desert: Indices and an Introduction to the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Series*, DJD XXXIX (Oxford: Clarendon Press, 2002).

23) T. H. Lim, "The Qumran Scrolls, Multilingualism, and Biblical Interpretation," J. J. Collins and R. A. Kugler, eds., *Religion in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2000), 67.

은 모두 성서 히브리어로 쓰였다.<sup>24)</sup> 여기에 포함되는 사본들은 다마스쿠스 문헌, 공동체 규칙서, 회중 규칙서, 축복 규칙서, 전쟁 규칙서, 성전 두루마리, 찬양 시편, 여러 성서 주해들이다. 따라서 쿵란 공동체의 언어는 히브리어였다. 히브리어 사본 중에서 4QMMT<sup>25)</sup>와 청동 두루마리(3Q15)<sup>26)</sup>에는 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히브리어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4QMMT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관계 대명사가 구어체 히브리어로 사용되었다.<sup>27)</sup> 쿵란 사본 중 약 120여 종류는 아람어로 쓰였는데, 대부분 묵시문학적인 작품으로 쿵란 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것들이다.<sup>28)</sup>

쿵란에서 발견된 그리스어 사본<sup>29)</sup> 중에서 19개는 제7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나머지 8개는 제4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쿵란에서 그리스어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쿵란-에세네파와 헬레니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sup>30)</sup> 1955년에 발견된 제7 동굴의 사본들은 모두 그리스어 파피루스 단편들이다.<sup>31)</sup> 프랑스 학자 바이에(M.

24) M. Hengel, "Qumran and Hellenism," 49.

25) E. Qimron and J. Strugnell, DJD X (Oxford: Clarendon Press, 1994).

26) 청동 두루마리는 팔레스타인에 존재하는 64 군데의 보물 은닉 장소의 목록이다. 금, 은, 제의 도구들, 사제복, 귀중한 향과 향유 등이 감춰진 장소가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청동 두루마리의 기원과 내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보물 장소가 실제인지 상징인지 논란이 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다음을 보라. É. Puech, *Le Rouleau de cuivre de la grotte 3 de Qumrân*(3Q15), I, II (Leiden: Brill, 2006).

27) T. H. Lim, "The Qumran Scrolls, Multilingualism, and Biblical Interpretation," 68; G. J. Brooke, "Langues, sciences et technique," 142-147.

28) 사해 사본 중 아람어 사본의 목록은 E. Tov, "Lists of Specific Groups of Texts from the Judaean Desert," DJD XXXIX (Oxford: Clarendon Press, 2002), 221-226을 보라.

29) 사해 사본 중 그리스어 사본의 목록은 E. Tov, "Lists of Specific Groups of Texts from the Judaean Desert," 215-220을 보라.

30) T. H. Lim, "The Qumran Scrolls, Multilingualism, and Biblical Interpretation," 68.

31) 쿵란의 11개 동굴들 중에서 유독 제7 동굴에서 그리스어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다.

Baillet)는 쿵란 제7 동굴 사본들의 공식판을 1962년에 DJD의 III권에 발표하였다.<sup>32)</sup> 이 공식판에서 바이에는 가장 큰 두 파피루스 단편이 그리스어 번역 성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7Q1을 출애 28,4-7의 칠십인 역 사본으로, 7Q2를 예레미아의 편지 43-44의 사본으로 확인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17개의 그리스어 파피루스는 미확인 상태로 발표하였는데,<sup>33)</sup> 그 이유는 제7 동굴의 파피루스 단편들이 그 크기가 매우 작고, 그 보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4 동굴의 그리스어 사본으로는, 칠십인 역 레위기의 2개 사본인 4Q119와 4Q120, 칠십인 역 민수기 사본인 4Q121, 칠십인 역 신명기 사본인 4Q122, 출애굽기의 해설인 4Q126, 미확인 사본들인 4Q127, 4Q350, 4Q361 등이다. 한편 다른 사본들에서는 매우 적은 경우이지만, 그리스어적 용법이 사용되었다.<sup>34)</sup> 그리고 청동 두루마리에서는 대 여섯 개의 그리스어 차용어가 발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쿵란에서는 칠십인 역 사본을 비롯하여 매우 적은 수의 그리스어 사본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사본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은 쿵란-에세네파 공동체가 그리스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의도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언어적인 순수주의이다.<sup>35)</sup> 즉, 그리스어 차용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32) M. Baillet, DJD III (Oxford: Clarendon Press, 1962), 142-146.

33) 1972년에 오칼라간(J. O'Callaghan)은 쿵란의 제7 동굴에서 신약 성서의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신약 성서의 사본인 쿵란 문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7Q4=1티모 3,16; 4,1-3, 7Q5=마르 6,52-53, 7Q6 1=마르 4,28, 7Q6 2=사도 27,28, 7Q7=마르 12,17 7Q8=야고 1,23-24, 7Q9=로마 5,11-12, 7Q10=2베도 1,15, 7Q15=마르 6,48 등이 그것이다. 그는 특히 7Q4와 7Q5는 확실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그의 주장은 달리, 7Q4 1은 예녹의 편지 103,2-4, 7Q4 2는 예녹의 편지 105,1에 해당하고, 7Q8. 11. 12. 13. 14도 예녹서의 마지막 부분의 그리스어 번역에 해당한다. 상세한 논의는 송창현, “쿵란 사본과 성서 연구-4Q285, 4Q448, 4Q246, 7Q5, 11Q13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6 (2005), 25-28을 보라.

34) T. H. Lim, “The Qumran Scrolls, Multilingualism, and Biblical Interpretation,” 69.

35) M. Hengel, “Qumran and Hellenism,” 47.

그리스적 사상과 실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쿰란-에세네파의 부정적인 태도를 잘 드러낸다. 따라서 쿰란에서 발견된 그리스어 사본의 수나 그리스어 사용과 용법으로 보아 쿰란 공동체에 대한 헬레니즘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쿰란의 그리스어 사본은 쿰란 공동체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접촉했다는 증거로 충분하다.<sup>36)</sup> 최소한 쿰란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는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37)</sup> 또한 성서 주해 등의 사본에서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언급은 쿰란 공동체가 주변의 비 유대인 세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sup>38)</sup>

#### 4. 쿰란의 점성술과 골상학

1964년에 알레그로(J. M. Allegro)는 4Q186 사본을 처음으로 공개한 다음, 1968년의 DJD V권을 통해 공식판을 발표하였다.<sup>39)</sup> 그러나 이 사본의 공식판은 해독과 해석에 많은 오류가 있어 스트러그넬(J. Strugnell)은 새로운 해독과 해석을 제시하였다.<sup>40)</sup> 4Q186을 중심으로

36) G. Bohak, "Hellenism," 351.

37) T. H. Lim, "The Qumran Scrolls, Multilingualism, and Biblical Interpretation," 70. 행엘은 이스라엘의 에세네파와 이집트의 테라페우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한다. M. Hengel, "Qumran and Hellenism," 50. 필로는 그의 저서 "명상 생활에 대하여"에서 알렉산드리아 근처 마레오티스 호수 근처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던 유대인 그룹 테라페우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8) G. Bohak, "Hellenism," 351.

39) J. M. Allegro, "An Astrological Cryptic Document from Qumran," *JSS* 9 (1964), 291-294; J. M. Allegro, "4Q186," DJD V (Oxford: Clarendon Press, 1968), 88-91.

40) J. Strugnell, "Notes en marge du volume V des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of Jordan'," *RQ* 7 (1969-1971), 274-276.

콰란의 점성술(horoscopy)과 골상학(physiognomy)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콰란 공동체가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sup>41)</sup> 이와 관련하여 4Q318, 4Q534, 4Q561 등의 사본도 논란이 되었다. 4Q318는 2000년에 DJD XXXVI권에 공식판이 “황도대와 천등점”(Zodiology and Brontology)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sup>42)</sup> 4Q534는 2001년에 DJD XXXI권에 “노아의 탄생”(Naissance de Noé)으로 발표되었다.<sup>43)</sup> 4Q561은 2009년에 DJD XXXVII권에 발표되었다.<sup>44)</sup> 그런데 이들 사본은 모두 단편의 상태들이다.

4Q186의 사본학적 특징은 히브리어를 반대 방향으로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며, 각기 다른 서체, 즉 그리스어, 고대 히브리어 등으로 글자를 썼다는 것이다(이러한 비밀스런 서체 사용은 매우 특이하다). 사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9개의 영을 가지는데, 이 영의 구성은 빛의 영과 어둠의 영으로 나누고 그 비율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 “그의 영은 빛의 집에 여섯, 어둠의 집에 셋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난 날의 표시이다[황소 자리의 발. 그는 가난할 것이다. 그의 동물은 황소이다](4Q186 1 ii 7-9)]. 각 사람의 신체적인 외모나 빛과 어둠의 영의 구성과 그의 운명은 그가 태어난 순간의 황도대 별자리에 의해 결정된다.<sup>45)</sup> 이와 같이 4Q186은 점성술과 점성술적 골상학

41) 최근의 논의는 다음을 보라. M. Albani, “Horoscopes in the Qumran Scrolls,” P. W. Flint and J. C. VanderKam, eds.,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II (Leiden: Brill, 1999), 279-330; M. Albani, “Horoscopes,”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70-373; M. Popović, “Reading the Human Body and Writing in Code: Physiognomic Divination and Astrology in the Dead Sea Scrolls,” A. Hilhorst, É. Puech, and E. Tigchelaar, eds., *Flores Florentino: Dead Sea Scrolls and Other Early Jewish Studies in Honour of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Leiden: Brill, 2007), 271-284.

42) J. C. Greenfield and M. S. Sokoloff, “4Q318,” DJD XXXVI (Oxford: Clarendon Press, 2000), 259-274.

43) É. Puech, “4Q534,” DJD XXXI (Oxford: Clarendon Press, 2001), 129-152.

44) É. Puech, “4Q561,” DJD XXXVII (Oxford: Clarendon Press, 2009), 303-321.

을 그 내용으로 한다.<sup>46)</sup>

행엘은 4Q186 사본이 쿵란 공동체와 헬레니즘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점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sup>47)</sup> 과연 골상학과 점성술은 쿵란에 세네파의 종교 사상 중의 하나였으며,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실천되었는가?

쿵란 공동체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골상학과 점성술은 공동체 회원의 자리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공동체는 별들의 규칙적인 움직임, 안식일과 축제의 날짜를 고정시킨 태양력, 개인의 별자리 운세와 신체적 외모에 근거한 미래의 예측 등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은 헬레니즘과 함께 확산된 이성주의의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sup>48)</sup> 그리고 4Q186의 비밀 서체는 쿵란에서 점성술이 중요성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것이다.<sup>49)</sup>

사실 쿵란 공동체 당시 헬레니즘 안에서는 점성술과 관련 과학이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스토아적인 결정론이 이것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은 쿵란-에세네파의 결정론과 이원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쿵란 공동체는 역사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결정론을 따랐다. 이것은 이원론과도 관련되는데, 특히 1QS III 13-IV 26의 두 가지 영에 대한 가르침, 즉 선한 영과 악한 영에 대한 가르침에 잘 드러난다. 공동체는 선과 악,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의 이원론을 따랐다. 공동체는 자신들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느님의 심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전망에서 의인은 하느님의 보상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데, 공동체의 운명은 종말에 마지막 승리로 예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또한

45) M. Albani, "Horoscopes," 371.

46) 점성술은 인간의 출생이나 잉태의 순간에 해, 달, 별의 위치가 황도대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이다.

47) M. Hengel, "Qumran und der Hellenismus," 367 이하.

48) M. Hengel, "Qumran and Hellenism," 54.

49) M. Albani, "Horoscopes," 372.

에세네회는 헬레니즘 시대의 다양한 기술적인 성과를 무시하지도 않았다. 쿵란 사본 중에서 헬레니즘의 기술을 모방하는데, 그리스의 전쟁법과 무기를 모방하는 전쟁 규칙서가 대표적이다.<sup>50)</sup>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구약 성서에는 점성술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신 18: 9-14; 사 47: 13-14; 단 2: 2, 10), 유대이즘의 전통에 충실했던 쿵란 공동체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수용했을지는 의문이다. 쿵란 공동체 안에서 권위 있는 책으로서 정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예녹 1서와 희년서<sup>51)</sup>도 점성술을 단죄한다. 그리고 쿵란에서의 두 가지 영의 가르침과 점성술적 골상학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규칙서에서 인간의 행동이 중요한 반면, 4Q186에서는 골상학적 특징과 같은 인간의 외형적인 요소만을 다룬다. 한편 4Q186의 비밀스런 서체의 사용은 점성술과 골상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종류의 사본을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이 사본이 공동체 안에서 공공연하게 읽혀지지 못했으며, 단지 허가 받은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었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쿵란에서는 골상학과 점성술에 관련된 사본이 매우 적은 수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소수의 사본을 쿵란-에세네회 공동체 안에서 골상학과 점성술이 널리 실행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설령 이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었더라도 그것을 헬레니즘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점성술적인 전승은 더 오래된 바빌로니아 문헌들에 기인한다.<sup>52)</sup> 헬레니즘 당시의 점성술도 바빌로니아 전승에 그 기원을 가진다.

50) M. Hengel, "Qumran and Hellenism," 47.

51) 송창현, "쿵란 사본과 정경의 문제," 「Canon&Culture」 1:1 (2007), 72-104.

52) G. Bohak, "Hellenism," 351; G. J. Brooke, "Langues, sciences et technique," 145.

## 5. 콥란의 부활 사상

에세네회의 종교 사상 중에서 미래의 삶, 특히 사후의 삶에 대한 주제는 매우 흥미롭다. 에세네회가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영혼의 불사불멸을 믿고 있었는지 고대 저술가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다.<sup>53)</sup>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에서 에세네회를 소개하고 있다.<sup>54)</sup>

154 육체는 부패하고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은 불사불멸이고 영구히 지속한다는 교리가 에세네회에게는 확고하였다. 영혼은 매우 미세한 창공으로부터 나와 자연적인 마력에 이끌려 마치 감옥처럼 육체에 결합되었다. 155 그러나 영혼이 오랜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처럼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면 기뻐하며 높이 들려진다.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에세네회가 주장하기를, 선한 영혼에게는 바다 너머에 비도 눈도 썰는 듯한 더위도 없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다. 이곳은 바다에서 불어 오는 서쪽 미풍으로 신선하다. 그러나 에세네회는 악한 영혼에게는 끊임없는 혼란으로 가득 찬 어둡고 소란스런 깊은 구덩이를 정하여 둔다. 156 내가 보기에 이것은 그리스인들의 생각과 동일하다. 그들은 영웅들이나 반신들이라 일컬어지는 용감한 자들에게는 축복의 섬을 마련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영혼에게는 하데스의 악인들의 거처가 예정되어 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그곳은 시지푸스, 탄탈루스, 익시온, 티티우스와 같은 자들이 징벌을 받는 곳이다. 그들은 덕행을 격려하고 악행을 멀리하기 위하여 불사불멸의 영혼을 상정하였다. 157 사실 선한 이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보상에 대한 희망으로 더 잘 되고, 악한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악행을 자제한다. 그들은 살아 있을

53)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É. Puech, *La croyance des Esséniens en la vie future: immortalité, résurrection, vie éternelle? Histoire d'une croyance dans le Judaïsme ancien*, II (Paris: Gabalda, 1993), 703-769.

54) G. W. E. Nickelsburg, "Resurrection,"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66.

때는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죽어서는 징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158 이것이 에세네파가 영혼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이다. 이상이 에세네파의 영혼에 관한 교리의 내용이었다. 그들의 지혜를 맞본 사람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다(『유대 전쟁사』 2권, 154-158).<sup>55)</sup>

에세네파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영혼의 불사불멸을 주장하고 정의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여긴다(유대 고대사 18권 18).<sup>56)</sup>

이 두 작품들의 관계를 본다면 『유대 고대사』의 본문은 『유대 전쟁사』 본문의 요약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본문에 따르면, 요세푸스는 에세네파의 영혼 불사불멸에 대한 사상이 그리스인의 사상과 흡사하다고 설명한다.<sup>57)</sup> 즉, 에세네파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지만, 바리사이파는 영혼이 새로운 몸 혹은 새로운 삶으로 변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에서 그가 바리사이파를 결정적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에세네파에게서 그의 청춘기를 보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에세네파에 대한 그의 진술이 가지는 정확성과 객관성은 문제가 된다.

한편 이보다 더 후대인 기원후 2-3세기의 인물인 로마의 히폴리투스도 그의 저서 “모든 이단에 대한 논박”에서 에세네파의 부활 사상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에세네파에 대하여 “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잘 확립되어 있었다. 그들은 육신이 부활하고, 영혼이 이미 불사불멸한 것처럼 육신도 불사불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9권 27)고 기록한다.

---

55) H. St. J. Thackeray, *Josephus: Jewish War Books I-II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380-383.

56) L. H. Feldman, *Josephus: Jewish Antiquities Books XVIII-XI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14-15.

57) M. Hengel, “Qumran and Hellenism,” 54; G. W. E. Nickelsburg, *Resurrection, Immortality, and Eternal Life in Intertestamental Juda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167-169.

우리는 요세푸스와 히폴리투스의 문헌들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에세네파의 종교 사상과 관련하여, 요세푸스는 영혼의 불사불멸을 이야기한다면, 히폴리투스는 우주적 쇄신의 때에 일어날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두 저술가 중에서 누가 에세네파의 사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요세푸스가 히폴리투스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인물이기에, 그의 작품이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까운 것일까? 요세푸스는 에세네파에 대하여 헬레니즘화된 표현들으로써 묘사하는가? 아니면 히폴리투스가 에세네파를 그리스도교적인 표현들으로써 묘사하고 있는가?<sup>58)</sup>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에세네파의 종교 사상과 관련된 이 오래된 논쟁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쿵란 사본의 발견이다. 이 사본의 발견으로 우리는 에세네파의 종교 사상에 대하여 간접적인 사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쿵란-에세네파의 직접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sup>59)</sup>

쿵란 사본 중에서 미래의 삶과 부활에 대한 에세네파의 사상을 함축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묘사하는 문헌은, “찬양 시편”, “공동체 규칙서”, “전쟁 규칙서”, “다마스쿠스 문헌” 등이 있다. 그런데 쿵란 사본 중에 에세네파의 부활 사상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사본은 4Q521과 4Q385이다.<sup>60)</sup>

히브리어 사본인 4Q521의 공식판은 뤼에쉬(É. Puech)에 의해 1998

58) 최근의 논의는 다음을 보라. J. J. Collins, “The Essenes and the Afterlife,” F. García Martínez, A. Steudel, and E. Tigchelaar, eds., *From 4QMMT to Resurrection: Mélanges qumraniens en hommage à É. Puech* (Leiden: Brill, 2006), 35-53.

59) É. Puech, “What can the Dead Sea Scrolls teach us about the belief in the resurrection in Ancient Judaism?” 『Canon&Culture』 2:1 (2008), 43-88.

60) 쿵란 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 제2차 성전 시대 유대이즘의 부활 사상에 대한 증거는 다니 12,1-3; 2마카 7,1-36; 12,38-45; 14,37-46와 1예녹 25,4-6; 51,1-2; 58,2-3; 92,3-5; 100,4-9; 103,3-4 등이다. 따라서 4Q521과 4Q385는 구약 성서와 예녹 1서의 초기 전승들 이후에 부활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다.

년에 DJD XXV권에 “메시아적 묵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sup>61)</sup> 이 공식판 출판 전후로 4Q521은 부활 사상뿐 아니라 메시아 사상과 신, 구약 본문 상호 관련성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62)</sup> 사본의 필체 연구에 의하면 4Q521은 기원전 1세기 초반에 필사되었다. 한편, 시편 146을 인용하는 4Q521 frgs 2 ii+4 8에서 신명사문자가 조직적으로 생략되었고, 다른 경우에는 그것을 아도나이로 대치했다는 점은 저작 연대를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이 사본이 다니엘서 이후에 저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증거들은 4Q521이 콤파 공동체의 초기의 작품일 개연성을 뒷받침한다.<sup>63)</sup> 따라서 이 사본은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저작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 사본 중 2 ii+4 단편의 본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그분의 메시아의 말을 들을 것이고 2 그것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거룩한 사람들의 계명들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주님을 찾는 여러분은 그분을 위한 봉사에서 굳 세어져라. (여백) 4. 이것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찾지 않겠는가, 그들의 마음으로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5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돌보실 것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이름에 따라 부르실 것이며 6 가난한 사람들 위에 그분의 영이 감돌 것이고, 당신 힘으로 그분은 진

61) É. Puech, “4QApocalypse messianique,” DJD XXV (Oxford: Clarendon, 1998), 1-38.

62) 최근의 논의는 다음을 보라. J. J. Collins, “A Herald of Good Tidings Isaiah 61:1-3 and its Actualization in the Dead Sea Scrolls,” C. A. Evans and S. Talmon, eds., *The Quest for Context and Meaning. Studies in Biblical Intertextuality in Honor of James A. Sanders* (Leiden: Brill, 1997), 225-240; M. Becker, “4Q521 und die Gesalbten,” *RQ* 18 (1997), 73-96; J. Zimmermann, *Messianische Texte aus Qumran* (Tübingen: J.C.B. Mohr, 1998), 343-389; K.-W. Niebuhr, “4Q521, 2 II-Ein eschatologischer Psalm,” *Mogilany* 1995 (1998), 151-168; A. Caquot, “Deux textes messianiques de Qumrân,” *RHPR* 79 (1999), 155-171; É. Puech, “Messianic Apocalypse,”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543-544.

63) É. Puech, “4QApocalypse messianique,” 36.

실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7 왜냐하면 그분은 경건한 사람들을 영원한 왕권의 옥좌 위에서 영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8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눈 먼 이들에게 시력을 되돌려주시며, 굶은 것을 다시 세우시면서. 9 저는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충실할 것이고, 당신 사랑 안에 그분은 [값아 주실 것이다.] 10 그리고 선한 일의 결실은 아무에게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11 전에는 결코 없었던 영광스런 행동들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현시키실 것이다. 12 왜냐하면 그분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낫게 하실 것이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3 그리고 그분은 [부족한] 사람들을 만족시키실 것이고, 내쫓긴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굶주린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4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과 모든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처럼 15 그리고 [ ]

4Q521에서는 메시아의 시대에 실현되는 하느님의 종말론적 행위들이 묘사된다.<sup>64)</sup> 즉, 부활 사상이 창조주 하느님의 새로운 개입으로 묘사된다. 하느님은 하늘, 땅, 바다,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의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악인들은 죽음을 맞게 하신다. 하느님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인데 이것은 고통 받는 의인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여러 종말론적 행위들 중의 하나이다. 이 행위들은 이사야 61장을 바탕으로 표현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고, 눈먼 이들에게 시력이 되돌려진다. 이와 같이 4Q521는 죽은 이들의 부활을

64) 메시아 시대의 표징들과 관련하여 마태 11:2-6, 루카 7:18-23은 4Q521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본문이다. 마태 11:5(=루카 7:22)에서 예수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눈 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콜린스(J. J. Collins)는 이러한 유사성은 두 전승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루카 7,18-23과 마태 11,2-6 본문의 공통의 원천인 예수 어록(=Q)의 저자가 이미 4Q521 사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본의 전체 맥락에 따르면, 부활은 천상적인 혹은 천사적인 존재에로의 변형을 의미하며, 악인에 대한 징벌은 우주적인 범위에서 일어난다.

에세네파의 부활 사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번째 사본인 4Q385의 공식판은 다이먼트(D. Dimant)이 2001년에 “에제키엘서 위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sup>65)</sup> 이 사본의 저작 연대는 기원전 2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에제키엘서 위경은 에제 37장의 말라있는 뼈들의 환시에 대한 해석이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 환시를 유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에 대한 상징으로 소개하지만, 4Q385과 병행하는 사본들은 이것을 글자 그대로의 예언으로 이해하고 의인의 미래 부활로 해석한다. 하느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의인에 대한 충실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에제키엘서 위경에서 표현되는 부활 사상은 의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 있다.

다양한 쿰란 사본들에서 명시적으로 혹은 함축적으로 발견되는 에세네파의 부활 사상은 원죄 이전의 아담처럼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불사 불멸하게 창조된 상태로의 영광스런 변형을 의미한다. 즉, 부활은 아담의 영광을 옷 입는 것으로서 의인에 대한 하느님의 보상이다. 하느님 심판의 때에 의인들은 부활하지만, 악인들은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징벌을 받는다. 따라서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전에 지상 삶으로의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up>66)</sup>

지금까지 우리는 에세네파의 부활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에세네파에 대한 고대 저술가들의 작품들 중에서 요세푸스와 히폴리투

65) D. Dimant, “4Q385,” DJD XXX (Oxford: Clarendon Press, 2001), 17-51.

66) 이와 동일한 부활 사상을 우리는 사두가이파에 대한 예수의 말씀인 마르 12,18-27에서 발견할 수 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에세네파는 바리사이파뿐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교와도 매우 흡사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부활 개념은 다양한 예수 전승과 바울 전승(1테살 4,13-18; 1코린 15장)과도 일치한다.

스의 차이에 주목하였고, 이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쿵란 사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욱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히폴리투스의 기록이, 영혼의 불사불멸을 이야기하는 요세푸스의 기록보다 훨씬 더 에세네파의 부활 사상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독자들인 이방 로마인들을 위하여 유대적인 에세네파의 부활 사상을 선재하는 영혼의 불사불멸이라는 그리스적 표현으로 묘사하였다. 이 표현은 유대적 인간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 충실했던 에세네파가 영혼과 관련된 그리스적 개념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6. 쿵란-에세네파 공동체의 성격

쿵란 공동체의 조직과 생활을 기록한 사본들이 발표된 이후, 쿵란-에세네파 공동체와 당시의 여러 비 유대적인 종교, 사회적 단체와의 비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그리스-로마 시대의 다양한 상인 단체(trade guild)와 자발적 단체(voluntary association)와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67)</sup>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방대한 연구를 한 학자는 바인펠드(M. Weinfeld)이다.<sup>68)</sup>

이러한 맥락에서 행엘은 쿵란 공동체와 헬레니즘 시대의 여러 단체들과의 유사점들을 지적한다.<sup>69)</sup> 쿵란 공동체의 가입은 전적으로 개인

67) H. Bardtke, "Die Rechstellung der Qumran Gemeinde," *TLZ* 86 (1961), 93-104; E. W. Larson, "Greco-roman guilds,"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21-323.

68) M. Weinfeld, *The Organizational Pattern and the Penal Code of the Qumran Sect* (Fribourg: Vandenhoeck & Ruprecht, 1986). 이 책에 대한 서평은 다음을 보라. É. Puech, "Recension," *RQ* 53 (1989), 147-148.

69) M. Hengel, "Qumran and Hellenism," 48-51.

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의 종교 생활이 이미 개인화되는 표지라는 것이다.<sup>70)</sup> 이러한 경향은 그 이후의 예수 운동과 그리스도교의 시작에서도 발견된다. 공동체의 가입이 개인의 선택과 회심의 표시인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유사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이것은 지도적인 혹은 창설자 철학자의 가르침과 권위에 따르는 철학 학파 공동체로의 회심과 매우 유사하다. 쿵란에서도 공동체의 창설자인 정의 스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세푸스는 『유대고대사』 15권 371에서 에세네파를 “피타고라스가 그리스인들에게 가르친 생활 방식을 따르는 유대인 그룹”으로 묘사한다. 에세네파와 피타고라스 학파 사이의 유사점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다.<sup>71)</sup> 특히 쿵란 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 학자들은 에세네파를 팔레스타인에서의 피타고라스 학파로 가정하였다.<sup>72)</sup> 이러한 의미에서 에세네파의 독신 생활과 재산 공유는 그리스인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재산의 공유는 구약 성서의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재산 공유와 사유 재산의 거부는 헬레니즘 안에서 철학적인 이상이였다. 따라서 이러한 그리스적인 이상이 에세네파 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로와 요세푸스의 기록들에서 에세네파가 유대 철학자들로 소개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sup>73)</sup>

그러나 우리는 헬레니즘이 쿵란-에세네파 공동체의 조직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 쿵란의 공동체와

70) M. Hengel, “Qumran and Hellenism,” 48.

71) M.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243-247.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보라. J. Taylor, *Pythagoreans and Essenes. Structural Parallels* (Paris: Peeters, 2004).

72) 예를 들어 Lévy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전설적인 생활이 에세네파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주장한다. I. Lévy, *La légende de Pythagore de Grèce en Palestine* (Paris: École des Hautes Études, 1927), 특히 264-293, 573-584를 보라. 최근의 논의는 다음을 보라. J. T. Fitzgerald, “Pythagoreans,”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28-729.

73) M. Hengel, “Qumran and Hellenism,” 51.

헬레니즘 시대의 다양한 단체들 사이에 일정한 유사점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 상호 작용의 결과일 수는 없다. 우리는 유사한 현상이 상호 관련성이 없는 사회적 배경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sup>74)</sup>

## 7. 나오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콰란에서의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의 충돌이라는 배경에서 하시딤과 에세네페의 역사를 규명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콰란의 그리스어, 점성술과 골상학, 부활 사상, 공동체의 조직과 성격 등의 주제를 통하여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의 다양한 만남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말미암은 헬레니즘의 확장은 기원전 4세기 이후 근동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의 점령 이후 팔레스타인은 헬레니즘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다. 즉, 팔레스타인은 주변의 다른 세계와 동떨어진 외딴 섬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상황 안에서 주변 세계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헬레니즘적 유대이즘의 범주에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포함시키고, 팔레스타인 유대이즘을 그 헬레니즘의 영향으로부터, 혹은 그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분명한 오해이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헬레니즘이라는 도전은 팔레스타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전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즉, 친 헬레니즘적 경향과 동시에 반 헬레니즘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콰란-에세네페 공동체의 기원은 기원전 2세기의 반 헬

74) G. Bohak, "Hellenism," 351.

레니즘적인 경향의 하시딤이다. 하시딤은 안티오크스 4세의 박해에 반대하여 일어난 마카베오 항쟁에 동참하여 헬레니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한 이들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원은 콤란의 에세네파가 가졌던 헬레니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잘 설명해준다. 콤란-에세네파 공동체는 참된 이스라엘, 남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이즘의 전통적 가치에 충실하였다. 기원전 2세기 이후 콤란-에세네파는 팔레스타인 유대이즘 안에서 반 헬레니즘적 경향의 대표적인 그룹이었다.

콤란-에세네파 공동체의 반 헬레니즘적인 특징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콤란 사본의 대부분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였고, 매우 적은 수의 그리스어 사본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헬레니즘이 콤란-에세네파 공동체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 공동체는 헬레니즘에 대항하여 언어적인 순수주의를 견지하였음을 말해준다. 둘째, 콤란에서 점성술과 골상학과 관련된 매우 적은 수의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콤란-에세네파 공동체 안에서 이들 기술이 널리 실행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셋째, 요세푸스가 말하는 영혼의 불사불멸보다는 히폴리투스가 말하는 육신의 부활이 에세네파의 부활 사상에 더 부합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요세푸스는 영혼의 불사불멸이라는 그리스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유대적 전통에 충실했던 에세네파가 영혼과 관련된 그리스적 개념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넷째, 헬레니즘이 콤란-에세네파 공동체의 조직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다양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콤란의 공동체와 헬레니즘 시대의 여러 단체들 사이에 존재했던 다양한 유사점들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이 둘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콤란의 에세네파 공동체는 유대이즘의 전통과 가치에 충실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헬레니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콤란의 에세네파는 제2차 성전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 반 헬레니즘적 경향과 유대이즘의 보수적 경향을 대표하는 그룹이었다. 행엘의 표현대로 쿨란과 헬레니즘은 불과 물의 관계였으며, 그가 생각한 만큼 쿨란 공동체에 대한 헬레니즘이라는 시대정신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주요어>**

쿨란 사본, 유대이즘, 헬레니즘, 에세네파, 쿨란 공동체

**<Key Words>**

Qumran Manuscripts, Judaism, Hellenism, Essenes, Qumran Community

### 참고문헌

- 송창현, “쿰란 사본과 성서 연구-4Q285, 4Q448, 4Q246, 7Q5, 11Q13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6 (2005), 7-38.
- 송창현, “쿰란 사본과 정경의 문제,” 「Canon&Culture」 1:1 (2007), 72-104.
- Albani, M., “Horoscopes in the Qumran Scrolls,” P. W. Flint and J. C. VanderKam, eds.,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II, Leiden: Brill, 1999, 279-330.
- Albani, M., “Horoscopes,”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70-373.
- Allegro, J. M., “4Q186,” DJD V, Oxford: Clarendon Press, 1968, 88-91.
- Bardtke, H., “Die Rechstellung der Qumran Gemeinde,” *TLZ* 86 (1961), 93-104.
- Bohak, G., “Hellenism,”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50-351.
- Brooke, G. J., “Langues, sciences et technique,” F. Mébarki and É. Puech, eds.,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Rodez: Rouergue, 2002, 142-147.
- Collins, J. J., “Cult and Culture: The Limits of Hellenization in Judea,” J. J. Collins and G. E. Sterling, eds., *Hellenism in the Land of Israel*,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1, 38-61.
- Collins, J. J., “The Essenes and the Afterlife,” F. García Martínez, A. Steudel, and E. Tigchelaar, eds., *From 4QMMT to Resurrection: Mélanges qumraniens en hommage à É. Puech*, Leiden: Brill, 2006, 35-53.
- Cotton, H. M., “Greek,”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24-326.
- Dimant, D., “4Q385,” DJD XXX, Oxford: Clarendon Press, 2001, 17-51.
- Feldman, L. H., *Josephus: Jewish Antiquities Books XVIII-XI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Fitzgerald, J. T., “Pythagoreans,”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28-729.
- Greenfield, J. C. and Sokoloff, M. S., “4Q318,” DJD XXXVI, Oxford: Clarendon Press, 2000, 259-274.
- Hengel, M., “Qumran and Hellenism,” J. J. Collins and R. A. Kugler, eds., *Religion in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2000, 46-56.
- Hengel, M., “Qumran und der Hellenismus,” M. Delcor, ed., *Qumrân: Sa piété, sa théologie et son milieu*, Gembloux: Editions J. Duculot, 1978, 333-372.
- Hengel, M., *Judaism and Hellenism: Studies in Their Encounter in Palestine in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2, Philadelphia: Fortress, 1974.
- Larson, E. W., “Greco-roman guilds,”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21-323.
- Lim, T. H., “The Qumran Scrolls, Multilingualism, and Biblical Interpretation,” J. J. Collins and R. A. Kugler, eds., *Religion in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2000, 57-73.
- Nickelsburg, G. W. E., “Resurrection,”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64-767.
- Nickelsburg, G. W. E., *Resurrection, Immortality, and Eternal Life in Intertestamental Juda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 Nodet, É., “Asidaioi and Essenes,” A. Hilhorst, É. Puech, and E. Tigchelaar, eds., *Flores Florentino: Dead Sea Scrolls and Other Early Jewish Studies in Honour of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Leiden: Brill, 2007, 63-87.
- Popović, M., “Reading the Human Body and Writing in Code: Physiognomic Divination and Astrology in the Dead Sea Scrolls,” A. Hilhorst, É. Puech, and E. Tigchelaar, eds., *Flores Florentino: Dead Sea Scrolls and Other Early Jewish Studies in Honour of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Leiden: Brill, 2007, 271-284.
- Puech, É., “4Q534,” DJD XXXI, Oxford: Clarendon Press, 2001, 129-152.

- Puech, É., “4Q561,” DJD XXXVII, Oxford: Clarendon Press, 2009, 303-321.
- Puech, É., “The Essenes and Qumran, the Teacher and the Wicked Priest, the Origins,” G. Boccaccini, ed., *Enoch and Qumran Origins: New Light on a Forgotten Conne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5, 298-302.
- Puech, É., “What can the Dead Sea Scrolls teach us about the belief in the resurrection in Ancient Judaism?” 「Canon&Culture」 2:1 (2008), 43-88.
- Puech, É., *La croyance des Esséniens en la vie future: immortalité, résurrection, vie éternelle? Histoire d'une croyance dans le Judaïsme ancien I-II*, Paris: Gabalda, 1993.
- Puech, É., *Le Rouleau de cuivre de la grotte 3 de Qumrân (3Q15), I, II*, Leiden: Brill, 2006.
- Saulnier, C., *Histoire d'Israël*, Paris: Cerf, 1985; enal Code of the Qumran Sect, Fribourg: Vandenhoeck & Ruprecht, 1986.
- Saulnier, C., *La crise maccabéenne*, Paris: Cerf, 1982.
- Schofield, A. and VanderKam, J. C., “Were the Hasmoneans Zadokites?” *JBL* 124 (2005), 73-87.
- Sievers, J., *The Hasmoneans and Their Supporter: From Mattathias to the Death of John Hyrcanus I*, Atlanta: Scholars Press, 1990.
- Strugnell, J., “Notes en marge du volume V des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of Jordan’,” *RQ* 7 (1969-1971), 274-276.
- Taylor, J., *Pythagoreans and Essenes. Structural Parallels*, Paris: Peeters, 2004.
- Thackeray, H. St. J., *Josephus: Jewish War Books I-II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Tov, E., “Lists of Specific Groups of Texts from the Judaean Desert,” DJD XXXIX, Oxford: Clarendon Press, 2002, 203-228.
- Weinfeld, M., *The Organizational Pattern and the Penal Code of the Qumran Sect*, Fribourg: Vandenhoeck & Ruprecht, 1986.

<초록>

## 콤란의 유대이즘과 헬레니즘

송창현

(대구 가톨릭 대학교 교수, 신약학)

이 연구는 제2차 성전 시대의 팔레스타인, 특히 콤란에서의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의 만남에 관한 것이다. 행엘이 “콤란과 헬레니즘”이라는 주제를 “불과 물”로 표현한 것처럼, 콤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헬레니즘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로 간주되어왔다.

역사적 고찰과 문헌적 고찰에 따르면, 에세네파의 선구자는 마카베오 항쟁 시기의 사건들에 참여한 유대인 그룹 하시딤이다. 에세네파의 이 역사적 기원은 콤란 사람들이 헬레니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많은 학자들은 콤란에 대한 헬레니즘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그리스어, 점성술과 골상학, 사후 생명, 콤란 공동체와 동시대 그리스 단체들 사이의 유사점 등을 연구하였다. 콤란에서의 유대이즘과 헬레니즘 사이의 여러 유사점들이 언급되었고 해서 이 유사점들이 둘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유사한 현상이 아무런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콤란 사본은 그것의 필사자들이 자신들을 헬레니즘 문화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콤란 공동체는 팔레스타인 유대이즘 안에서 그리스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대한 가장 격렬한 반대자로 나타난다. 콤란 사람들에게 의하면 헬레니즘 문화의 특정한 측면들은 전통적인 유대 생활 방식과 양립할 수 없었다. 콤란 공동체는 명백하게 가장 보수적인 유대 전통을 대표한다.

<Abstract>

## Judaism and Hellenism at Qumran

Prof. Chang-Hyun S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is about the encounter of the Judaism and the Hellenism in Palestine of the Second Temple period, especially at Qumran. As M. Hengel expressed the theme “Qumran and Hellenism” like “fire and water,” the Qumranites have been generally considered as the sharpest enemies of Hellenism. At the same time it is often accepted that the enemy is influenced by the opinions against which he is fighting. What has happened between the Qumran Community and the Hellenism?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textual facts, the forerunner of the Essenes was the Hasideans, a group of Jews who participated in events at the time of the Maccabean Revolt. This historical origin shows the Qumranites’ fundamental opposition to the Hellenism. The subjects, like the Greek language, the Horoscopy and the Physiognomy, the Afterlife, the similarity between the Qumran Community and the contemporary Greek associations, have been treated by many scholars to explore the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f the Hellenism upon the Qumranites. Numerous parallels could have been mentioned between the Judaism and the Hellenism at Qumran. But such parallels need not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direct influences between two realities, for similar phenomena can often develop independently in unrelated social contexts.

The Qumran manuscripts testify to their owners’ relative success in insulating themselves against Hellenistic culture. The

Qumranites stood out as representing the most fervent enemies of the Greek way of life and thought inside of the Palestinian Judaism. Some aspects of Hellenistic culture were seen by the Essenes as irreconcilable with the Jewish traditional way of life. The Qumran Community clearly stand out as representing an extremely conservative Jewish tradition.